

베트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 의견	12

I. 일반개황

면적	331천 Km ²	GDP	1,753억 달러(2013년)
인구	89.7백만명(2013년)	1인당 GDP	1,954달러(2013년)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통화단위	Dong(D)
대외정책	친서방 노선	환율(달러당)	21,016.5(2013년 평균)

-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공화국으로, 1986년 도이모이 정책 도입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전통적인 농업국이었으나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제조업 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섬유·의류제품과 전자제품 수출 비중이 높음. 농업 부문에서는 쌀(세계 2위 수출국)과 커피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석유 개발에 성공한 이후 원유도 수출하고 있음.
- 총리, 국가주석, 당서기장 등 권력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금융기관 부실 해소 등을 위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1995년 ASEAN에 가입한 이후 역내 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하면서 선진 ASEAN 국가와 후발 ASEAN 국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과는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관련 해상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e
경제성장률	5.4	6.4	6.2	5.3	5.3
재정수지 / GDP	-6.6	-2.9	-2.9	-4.8	-4.0
소비자물가상승률	7.1	8.9	18.7	9.1	6.6

자료: IMF 및 EIU.

□ 소비심리 회복, 외국인투자 확대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5.4% 수준 전망

-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경제로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투자 심리 위축, 국영기업과 은행부분 부실화 문제로 최근 5~6%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는데 그치고 있음.
- 긴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은 5.3%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지연, 부실채권 문제로 인한 은행권의 소극적 대출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동화 평가절하 등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5.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물가 안정세에 힘입은 소비심리 회복,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 확대 등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통화량 확대정책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4% 시현 전망

-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아 국제원자재 및 곡물가격, 동화 환율 등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2년에는 통화량 축소정책 시행,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9.1%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공공요금 인상, 평가절하 조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안정, 소비심리 위축으로 6.6%까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회복과 통화량 확대정책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4%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수출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4.0% 수준

- 베트남은 소득 증가와 석유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부여로 세수 증가는 크지 않은 반면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인프라와 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부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4.8%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동 비중이 4.0%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 1월부터 일반기업에 대한 세율 역시 인하되지만 수출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가 지속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과 같은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국영기업 개혁은 지지부진

- 무분별한 비핵심산업 진출 등 방만경영으로 2012년 기준 GDP의 32.6%, 투자의 37.8%를 차지하는 국영기업 부문이 부실화되면서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주식회사 전환), 국영기업의 비핵심 산업 자회사 점진 매각, 상장기업에 준하는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영기업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음. 하지만 시장여건 악화,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민영화 등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임.
 -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전환 건수는 2005년 813건, 2006년 359건에 달한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12년 13건, 2013년 9월말 현재 43건에 그침.

□ 열악한 인프라가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의 2013-2014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3-2014)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148개국 중 82위에 해당되는데, 특히 도로(102위), 항만(98위), 항공(92위), 전기공급(95위)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전국적 전력망이 형성되어 있으나 송전 및 배전망 부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 손실, 전력 품질의 저하,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운송시간이 오래 걸리며 운송비 부담도 높음. 특히, 육상운송이 전체 물동량의 65%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낙후된 장비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 빈번하여 활용에 큰 어려움이 있음.

□ 만연한 부정부패, 관료주의에 따른 비효율 상존

- 국제투명성기구의 2013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3)에 따르면, 베트남은 31점을 득점하여 조사대상 177개국 중 중국(80위), 필리핀(94위), 인도네시아(114위)보다 낮은 116위로 평가됨.
 - 베트남의 반부패법은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으나, 세부 시행규칙 미비로 공무원의 재량권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 부패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음.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4(2013. 10월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의 기업 경영여건은 전체 185개국 중 99위 수준으로 평가됨.
 - 특히, 사업 개시, 조세납부 관련 절차가 많고 관료주의가 만연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수입관세, 수입수량 제한, 소비세 부과, 수입허가제 등 무역제도 관련 규제가 많고 수출입 관련 실무절차도 복잡한 편임.

나. 성장 잠재력

□ 소비성향이 높은 소비계층 증가로 내수시장 성장 전망

- 베트남은 약 9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4위의 인구대국으로, 2025년에는 약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소비 성향이 높은 20~30대 인구가 2000년 26백만 명에서 2015년 33백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베트남에서는 신흥 고소득층(vinavalet)과 젊은 소비자들의 과시성 고급제품 구매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성장에 따른 중산층 확대는 소비 시장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됨.
 - 베트남 중산층(연소득 5천~3만5천 달러)은 2009년 17백만 명에서 2020년 56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속 증가로 저임 노동력 풍부

-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동 비율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시행 경험을 보유하여 경제체제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저임노동력의 질이 양호함.
- 상대적으로 고숙련 노동자가 부족한 실정이나, 직업교육 및 전문학교와 대학교에 공공재원을 대폭 투입하는 등 베트남 정부가 인력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 유치, 부실자산 관리기관 설립 등을 통한 은행 산업의 부실채권 문제 해결 추진

- 국영기업 부실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베트남 금융기관이 부실화 되었음. 베트남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3년 10월 베트남 은행산업의 부실채권 비율은 동년 1월(4.3%) 대비 상승한 4.73%이나, 국제기준을 적용할 경우 동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
 - 국영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및 은행간 교차 지분보유 제도 등으로 인해 국영기업 비핵심부문 진출 재원 조달에 주로 대출이 지원되었는데, 이러한 대출이 부실화됨에 따라 부실채권 중 53%가 국영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짐.
 - 다만, 최근 아파트와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부실채권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대출 자산의 처리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베트남은 외국계 금융기관 투자 유치, 부실자산 관리기관 설립 등을 통해 은행 산업의 구조조정 및 건전성 제고를 추진 중임.
 -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2014년 1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부실채권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 완화 조치를 발표함.
 - 2013년 7월 설립된 베트남자산운용회사(VAMC)는 SBV의 감독 하에서 부실채권 매입, 채무재조정, 담보매각 등 은행권의 부실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사의 자본금이 5조 동(약 24백만 달러)에 불과하고 관련 규정도 미비하여 효과성이 제한적임.

- 한편, 부실채권 분류기준을 국제적 수준까지 강화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은행들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동 규정의 시행은 2014년 7월로 연기된 바 있음.

□ 금리, 환율 등을 활용하여 통화·환율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 2011년 통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SBV는 재대출금리를 연 9%(2011년초)에서 연 15%(2011. 10월)까지 인상하여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둔화시키는데 성공함.
- 통화 긴축으로 2012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자 SBV는 재대출금리를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지속 인하하여 연 7%로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화정책을 실시함.
- 2013년 6월 SBV가 동년 상반기 14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 시현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1%의 통화 가치 평가절하를 단행한 결과, 2013년에도 경상수지 흑자 및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추정됨.

3. 대외경제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e
경 상 수 지	-6,608	-4,276	236	9,062	9,914
경 상 수 지 / GDP	-6.2	-3.7	0.2	5.8	5.7
상 품 수 지	-7,607	-5,136	-450	9,885	8,924
수 출	57,096	72,237	96,906	114,573	135,375
수 입	64,703	77,373	97,356	104,668	126,451
외 환 보 유 액	16,027	12,054	13,128	25,161	32,651
총 외 채 잔 액	33,085	49,343	57,841	63,138	67,824
총외채잔액/GDP	31.2	42.6	42.7	40.5	38.7
D. S. R.	2.3	3.4	3.2	3.1	2.8

자료: IMF 및 EIU.

□ 수입수요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4.7% 시현 전망

- 베트남의 상품수지가 전자, 섬유 제품 등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경상수지 역시 2011년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2년에는 내수 위축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전자 및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로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5.8%로 상승하였음.
- 2013년에는 커피, 쌀, 원유 등의 수출 위축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등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89억 달러로 증가하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5.7%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도 제조업 제품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소비심리 회복과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는 78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4.7%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흑자 시현,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전망

- 2012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고가 25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010년 160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27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2012년에는 거시경제지표 안정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전년도 74억 달러에서 8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세율 인하 등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우대정책 확대로 2013년에는 105억 달러 수준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도 137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경상수지 흑자 시현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고가 39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

- 베트남은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음. 2011년 지도부 교체 시 불협화음은 없었으며, 향후 지도부 교체는 2016년에 예정되어 있음.
 - 당서기장은 보수파인 응웬 푸 쯡, 국가주석은 개혁파인 쯔엥 떼 샹이 선출되었으며, 총리는 개혁파인 응웬 떼 중이 유임되었음.
-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 갈등이 존재하나 정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하여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최근 경제성장세 둔화로 민주적 절차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 베트남 공산당은 언론 통제 강화, 인터넷에 대한 규제 신설, 유명 반체제 블로거 체포 등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2. 사회동향

□ 경제성장 과실 집중으로 지역 및 계층 간 빈부격차 확대

-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 대도시 거주 상류층에 집중되면서 지역 및 계층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베트남의 지니계수와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각각 1999년 0.39, 7.6배에서 2010년 0.43, 9.2배로 확대되었으며, 평균 빈곤율(poverty rate)은 17.2%, 도시 지역은 5.4%에 불과하지만, 시골 지역은 22.2%, 소수민족은 59.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베트남 정부는 농촌개발, 빈곤퇴치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하면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3. 국제 관계

□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개선 중

- 1995년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3년 7월 미-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이 발표되었음.
- 2010년 베트남-미국 간 군사정책대화가 최초로 개최되고, 2012년 미국 국방장관이 베트남 방문시 양국 군사협력 강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양국간 군사관계 역시 긴밀해지는 면모를 보이고 있음.
- 다만, 미국은 정치범·종교인에 대한 억압,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취약한 베트남의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관계 강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대중 관계는 영유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호적으로 변화

- 베트남은 국경 분쟁 등 역사적으로 중국과 잦은 분쟁을 겪었음. 2009년 중국과 육상 국경선 확정을 마무리하였으나, 해상 국경의 경우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임.
 - * 분쟁지역: Spratly(중국명 남사군도, 베트남명 청사군도) 및 Paracel(중국명 서사군도, 베트남명 황사군도) 도서 및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자체에 대한 영유권(중국 정부의 9개 점선을 연결한 소위 'U자형 수역' 내 영유권)
 - 중국 해군선박의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개발공사 시추선 케이블 절단사건(2011년), 분쟁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에 대한 중국의 나포 및 발포 등으로 양국간 갈등이 표면화된 바 있음.
- 다만, 중국은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이며 2013년 6월 중-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적극적인 양국관계 강화 의지가 표명된 바 있어 영유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우호관계 회복 조짐이 관찰됨.

□ ASEAN 국가와의 경제통합에 적극적

- 베트남은 1995년 ASEAN의 일곱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2010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한 바 있음. AFTA 발효 및 2015년 ASEAN 경제공동체(AEC) 발족 추진 등 ASEAN의 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하면서 선진 ASEAN 국가와 후발 ASEAN 국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양허성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로 D.S.R.은 낮은 수준

- 2013년말 기준 GDP 대비 외채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한 38.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나, 외채의 절반 정도가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되어 있음.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0년 이후 하락추세를 보여 2013년에는 2.8%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함.
- 2013년 3월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총 102.7억 달러 (단기 22.4억 달러, 중장기 80.3억 달러)이며, 연체액은 93백만 달러로 외채상환태도가 무난한 수준으로 평가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는 2013년 6월 CRE(Country Risk Expert) 회의에서 베트남 국영 기업의 방만 경영에 따른 은행부문 부실화를 감안하여 동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5등급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S&P는 2010년 12월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1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나, 베트남 정부의 효과적인 경제정책 수행에 따라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2012년 6월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하였음.
- Moody's는 2012년 9월 베트남의 경제성장세 둔화 및 은행산업의 취약성 등을 이유로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B1에서 B2로 1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Fitch는 2010년 7월 베트남의 장기외화표시채권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1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나, 베트남 금융산업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 둔화, 경상수지 흑자 전환 등을 감안하여 2014년 1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하였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13. 7)	C1	(2013. 1)
OECD	5등급	(2013. 6)	5등급	(2012. 3)
S&P	BB-	(2012. 6)	BB-	(2010. 12)
Moody's	B2	(2012. 9)	B1	(2010. 12)
Fitch	B+	(2014. 1)	B+	(2010. 7)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제한적 인수 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승인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재량한도 없음
- 영국 ECGD: 최고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4.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12월 22일 (북한과는 1950년 1월 31일)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93년), 무역협정(1993년), 항공협정(1993년), 투자보장협정(1993년, 2003년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과학기술협정(1995년), 원자력협정(1996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베트남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베트남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13,465	15,946	21,088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수 입	5,084	5,719	7,170	의류, 원유, 신발, 목재류
합 계	18,549	21,665	28,258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1년 교역규모는 18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는 217억 달러, 2013년에는 283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9년 이후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4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대 베트남 해외직접 투자는 2013년 9월말 기준 2,948건, 9,301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2013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5.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물가 안정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외국인투자 확대 등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전년도 9.1%에서 크게 하락한 6.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소비심리 회복과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7.4%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됨.
- 수출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013년, 2014년 모두 4.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전자제품 중심의 제조업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3년과 2014년 모두 경상수지 흑자를 시현할 전망임.
- 베트남 공산당 체재 하의 안정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해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말 기준 GDP 대비 외채 비중은 38.7%로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외채의 절반 가량이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되어 있고 외채원리금상환 비율(D.S.R.)도 2.8%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외환보유액도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어 대외 지급능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됨.

책임조사역 임영석 (☎02-3779-5704)
E-mail: yslim@koreaexim.go.kr